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2026년 상반기 지사대의원회 대표회의 개최

✎ 김순희 기자 | ☎ 승인 2026.06.24 14:24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본부장 박찬희)는 24일 본부 2층 중회의실에서 '2026년 상반기 지사대의원회 대표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13개 지사 대의원과 공사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해 공사 주요 업무를 공유하고 지역 농업 현안을 논의했다.

운영대의원회는 농업인이 참여해 지역 현장의 의견을 공사 업무에 반영하는 자문기구로, 올해부터는 지사별 부의장으로 구성된 지사대의원회 대표회의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경남지역본부는 이번 회의에서 영농기 용수확보 대책 및 풍수해 재난 대응 방안과 농지연금 등 농지은행 분야 주요 사업을 설명하고, 지사별 현안 및 건의 사항을 논의했다.

박찬희 경남지역본부장은 “경남 농업 발전과 공사 업무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히 듣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안전하고 풍요로운 영농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순희 기자 true@newsgn.com